

진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실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및 형제·자매 25명 대상 '우리 동네 제빵사'·'즐거운 수영 교실' 주제, 9일간 진행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및 형제·자매 2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 제빵사'와 '즐거운 수영 교실'이라는 주제로 8일부터 19일까지 9일間に 걸쳐 진행된다. 개인 방역 6대 수칙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제과·제빵 실습 및 수영 강습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평소 학기 중 접하기 어려운 제과·제빵 및 수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방학 중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OO초등학교 학생은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빵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보호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방학 때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하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문포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장영실 캠프 운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메이커 활동' 주제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원장 김성희)은 전라남도 초등학교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 창의융합교육원 모두공작소에서 장영실 캠프를 운영하였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메이커 활동'이라는 주제로 합숙형으로 진행된 장영실 캠프는 선착순 모집 3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시작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장영실 캠프는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시티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두 개 반으로 나뉘어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장치의 원리를 알고 코딩을 활용하여 실제 구현해보고 이를 토대로 직접 도시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학, SW, AI, 발명 로봇 코딩 등의 내용을 융합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장치와 스마트 팜을 만드는 메이커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친근한 블록 상자와 SW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이끌어 냈으며, 첫날 밤에 진행된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달 관측 활동은 캠프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영실 캠프는 1월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탐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고흥외국어체험센터, Around The World 여름 캠프 운영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고흥외국어체험센터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교실에서 떠나는 세계 여행 'Around The World'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이 멈춰있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가 가

관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교실서 진행

미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미국, 영국, 베트남, 호주, 필리핀 등 여러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Passport를 만들고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과 문장들을 익혀 그 나라의 지형, 문화, 유명 예술가 등 다양한 지식을 익히고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6학년에게는 세계여행과 더불어 Reading Buddy 교재로 Heath, Hobbies, Nature, Save the Earth 등 영어 스토리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일반상식을 넓히고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며 글을

잘 쓰기 위해 기초 영문법도 익히게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고흥동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은 "캠프에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것이라 생각해서 영어캠프를 신청했는데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캠프를 보낸 학부모님은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지만 의외로 어머니의 나라의 풍습, 기후, 음식, 언어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캠프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참여시켰는데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셨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평생교육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성료

광양평생교육관(관장 정미라)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지원협력사업인 '2022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옥곡지역 아동센터(옥곡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6학년 1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와와의 만남 및 샌드아트 공연', '독서 지도 전문 강사와 독서 후 후회활동', 사서와



함께 하는 '책 읽어주세요' 등 총 15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관내 배려대상 학생과 1:1:2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곤) Wee센터는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관내 샘-품지원단, 맘-품지원단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움을 나누는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행사의 전 과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영광 샘-품지원단, 맘-품지원단은 관내 배려대상 학생과 1:1, 1:2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은 '설탕 한 스푼, 사랑 두 스푼' 주제로 멘

토와 멘티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향유하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곤 교육장은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더불어 멘토의 관심과 애정은 멘티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과 심리·정서적 지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관



심과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